

제8회 세계한국학대회

2016. 10. 5.~7.

미국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대학교

조선왕조실록의 정보화와 그 영향

김영두(국사편찬위원회)

머리말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이하 실록) 웹서비스는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용하는 인기 웹사이트이다. 실록의 정보화와 웹서비스 제공은 자료 이용에 대한 획기적인 대중화를 가져왔다. 일반 대중이 실록의 국역본을 웹에서 읽을 수 있게 되자 다양한 문화적 현상이 나타났다. 조선시대 역사에 대한 대중 교양서들이 봇물 터지듯 간행되었고, 조선시대 역사를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 드라마,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실록의 대중화는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동안 수많은 역사 자료가 번역되고 디지털화되어 서비스되고 있지만 실록이 불러일으켰던 것과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이것은 웹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동안 실록은 조선시대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려 왔다. 그리고 조선 왕조의 역사 편찬 전통은 오늘날에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실록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자료의 정보화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비교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실록 CD-ROM이 발매되면서 내용을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자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대중화의 측면에서 추구하였지만,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는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실록의 대중화에 기여한 수십 년간의 작업을 개관해 보고, 그것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웹서비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실록의 대중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짚어보아야 할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조선왕조실록의 활용 및 정보화의 여정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왕조 역대 임금의 실록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조선 왕조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임금의 실록이 편찬되었다. 역대 임금 중 반정으로 재위 중 물러난 연산군과 광해군 때에 기록은 실록 대신 일기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실록은 대체로 활자로 인쇄되었는데 광해군일기만 인쇄되지 못하였고 현재 필사본인 중초본과 정초본이 각각 남아 있다. 조선 후기에는 당쟁의 결과 집권 세력이 바뀌면 기존의 실록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선조수정실록, 현종개수실록, 숙종실록보궐정오, 경종개수실록이 추가로 편찬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면 위에서 언급된 것 모두를 가리킨다. 조선의 마지막 두 임금인 고종과 순종의 실록은 일제 치하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하였다. 고.순종 실록은 일제에 의해 편찬되어 내용의 왜곡이 많고 체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조선왕조실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조선시대 실록은 사고에 엄중하게 보관하였고 임금이나 대신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었다. 오직 국정 운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히 사관을 파견하여 관련된 부분만을 베껴 오도록 하였다. 실록이 민간인들에게 공개된 것은 조선 왕조가 종언을 고한 뒤인 일제 시기였다. 일제는 정족산과 태백산 사고의 실록을 총독부로 이관했다가 1930년 경성제국대학으로 보내 관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성제국대학은 1929~1932년에 걸쳐 실록 영인본 888책을 간행하였다. 이것은 태백산 사고본을 원본으로 한 사진판을 실록의 1/4로 축쇄한 영인본이었다. 당시 영인본은 30부가 발행되었는데, 대부분 일본에 보내고 국내에 8부만이 남았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인본은 경성제국대학에서 공개되었다. 이것이 일반인들이 실록을 볼 수 있게 된 최초의 시점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때 실록의 공개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한문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지적 능력과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을 방문하여 오랜 시간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웠다.

실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될 수 있었던 것은 해방 이후에나 가능하였다. 국편은 1955~1959년에 걸쳐 조선왕조실록을 축쇄 영인하여 총 48권으로 간행하였다. 여기에는 태조부터 철종에 이르는 25대의 실록 1,707권에 광해군일기 중초본 187권이 덧붙여져 총 1,894권이 포함되었다.

그 뒤에도 국편은 실록을 보다 이용하기 편하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1963년 조선왕조실록에서 인명, 지명, 사건, 기타 주요 용어를 색인 항목으로 추출하여 한글 자모 순으로 편집한 『조선왕조실록 총색인』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1988~1991년에 걸쳐 3책으로 『광해군일기 중초본』을 간행하였다. 이는 중초본의 먹으로 삭제된 부분이나 난외에 쪽지로 덧붙여 놓은 부분을 되살린 다음 초서로 되어 있는 원문을 해서로 정서해서 영인한 것이다. 또한 1987~1994년에 걸쳐 『조선왕조실록 분류집』을 12책으로 간행하였고, 1995~2003년에는 『표점.교감 원문

조선왕조실록』의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1,707권에 이르는 거질의 조선 왕조 실록은 한문으로 기록되어 공개된 이후에도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웠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가 국역을 추진하였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1968년부터, 민족문화추진회는 1972년부터 국역을 시작하여 1993년에 완성하였다. 번역이 완료되었지만 실록의 활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다. 그것은 번역된 실록이 300~400쪽 정도의 책 413권의 거질이였기 때문이다. 또한 편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록의 활용을 획기적으로 넓힌 것은 정보 기술의 발전이었다.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의 등장과 같은 정보 기술의 발전은 당시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었는데, 실록도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받았다. 1995년에 서울시스템 한국학데이터베이스 연구소가 실록을 전산화하여 CD-ROM으로 제작하여 보급하였던 것이다. 실록이 디지털화됨으로써 내용 검색이 가능해졌고,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록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인터넷 서비스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각 기관의 고전적 자료들도 속속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인터넷에 공개되었는데, 국편, 서울대학교 규장각(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소(이하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 번역원을 비롯한 수많은 기관과 단체가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실록은 이러한 사업에서 오히려 뒤쳐져 있었다. 그것은 실록이 민간에서 CD-ROM으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었고, 원본 이미지, 원문 텍스트, 번역 텍스트 등의 저작권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편은 문화유산보존사업의 명목으로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된 사업의 결과, 2008년 국편은 실록과 고순종실록에 대한 웹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실록 웹서비스는 기존의 원문, 국역문 텍스트를 모아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 외에도,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에 소장되어 있던 태백산 사고본 실록을 모두 촬영하여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어 연계하였고, 광해군일기 중초본 텍스트도 모두 입력하였으며 고.순종실록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추가로 구축하였다. 이로써 국편 실록 웹서비스를 통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실록 및 고순종실록 전체의 원문과 국역문, 그리고 원본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뒤 2015년 검색 기능 및 디자인을 향상시킨 새 웹페이지를 개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돌이켜보면 오늘날 우리가 실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정보 과학의 발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실록 활용을 위한 노력의

덕분이다. 새로운 책이 간행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때마다 한 단계 진전된 결과를 낳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이 덧붙여졌다. 실록이 노력을 투자한 만큼 응분의 결실을 맺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러한 노력이 추진된 원인일 것이다.

2. 조선왕조실록 웹서비스의 특징

실록은 정보화 이후 자료를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해졌고, 그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지만, 워낙 방대한 분량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실록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실로 오랜 세월동안 이루어진 것이고, 현재의 웹서비스는 그러한 노력을 집대성한 결과이다. 따라서 실록 웹서비스에는 많은 기능들이 부가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달성된 것도 있지만 별도의 예산과 노력을 통해 부가된 것도 적지 않다. 그와 관련하여 국편 실록 웹서비스의 몇 가지 기능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기사제목이다. 실록이 정보화되면서 본문 검색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검색 결과 리스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각 기사별로 제목이 필요하였다. 그에 따라 실록의 각 기사별로 기사제목을 추출하였다. 그런데 기사제목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용도 외에 수많은 기사를 모두 읽지 않고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아주 유용하다. 현재 웹서비스에는 월별로 기사제목 전체 보기 화면이 있는데, 기사제목을 빠르게 읽으면서 단어 검색만으로 찾아내기 어려운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사제목 보기를 통해 자기가 찾는 기사의 앞뒤에 어떤 기사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찾는 기사가 어떤 맥락 속에 위치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색인에 대해 살펴보자. 흔히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단어 검색 기능이 생기면서 색인은 필요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다루는 데 있어 색인은 아직도 매우 유용하다. 실록 웹서비스에는 분류색인과 용어색인 기능이 있다. 분류색인은 3단계 주제 분류표를 가지고 실록 전체 기사를 분류한 것이다. 웹서비스의 분류표에서 각 단어를 클릭하면 해당 주제로 분류된 기사를 모두 볼 수 있다. 특정 주제와 관련된 기사만을 보고자 할 때 분류색인은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준다. 또한 분류색인은 분류색인 검색 기능을 통해 검색 결과를 한정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다. 특정한 주제 안에서만 자료를 검색하고자 할 때 분류색인 검색 화면에서 특정 분류로 검색 범위를 한정하고 검색하면 된다.

실록 용어색인은 크게 인명, 지명, 서명, 연호의 구분으로 색인되어 있는데,

인명은 다시 한국인명, 중국인명, 일본인명, 몽골여진인명, 서양인명으로 구분되고, 지명은 (일반)지명, 일본지명, 몽골여진지명, 서양지명으로 구분된다. 한국인명, 중국인명, 서양인명은 국가별로도 구분되어 있어 해당 인명이 한국, 중국, 서양의 어떤 왕조나 국가에 속하는지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용어색인은 해당 본문에 마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검색 기능에서 해당되는 용어만을 대상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용어색인 검색 화면에서 조건을 한정하여 별도로 검색할 수도 있다. 또한 본문 화면에서 용어색인 마크업이 되어 있는 용어는 별색으로 보여줌으로써 본문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도 이용되고 있다.

또한 상세검색 기능이 있는데, 일반적인 단어 검색으로 찾고자 하는 결과를 쉽게 찾을 수 없을 때, 검색 대상을 표제, 본문, 인명, 지명, 서명, 주석, 사론으로 한정할 수 있고, 또한 날짜 단위로 검색 대상 기간을 한정할 수도 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분류색인 검색이나 용어색인 검색도 특수한 검색 기능으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웹서비스의 부가열람 서비스에는 인물에 대한 신분별, 관인별, 관직별 열람 기능과 선원계보도가 있다. 먼저 관인별 열람은 실록에 나오는 한국인명을 모두 91개 본관과 110개의 성씨로 구분하여 해당 본관과 성씨에 소속된 인명을 리스트로 보여준다. 신분별 열람은 실록의 한국인명을 신분별로 분류하여 보여준다. 이 열람 기능을 이용하면 조선시대 특수한 신분과 관련된 사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관직별 열람은 실록에 나오는 관직을 뽑아 목록을 작성하고 그 관직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 기사를 연대순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관직을 어떤 사람들이 역임하였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원계보도는 조선 왕실의 족보인 『선원계보기략』을 바탕으로 하여 인물의 생몰년 정보와 자호 등의 인명 정보를 보완한 것으로 조선 왕실의 가계를 도표로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여러 부가열람 서비스에는 모두 “실록에서 검색하기” 기능이 부가되어 있어, 부가 열람에서 찾은 단어로 실록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편 실록 웹서비스에서는 원문, 번역문, 원본 이미지를 한 화면에서 서로 대조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국역문을 읽다가 오류가 의심되는 부분을 만나면 원문을 참조하게 된다. 원문을 보고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생기면 원본 이미지를 확인하게 된다. 현재 제공되는 국역은 번역된 지 이미 40년이 넘은 것도 있어서 번역문 자체의 문투가 오래되었다. 게다가 번역 오류도 적지 않아서 원문이나 원본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웹서비스에는 번역이나 입력 오류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마련해 두었는데, 아직까지 매일 수십 개의 오류가 신고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 번역문, 원본을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은 특히 전문 연구자들에게는

필수적이다.

3. 조선왕조실록 활용 사업의 현황

국편 실록 웹서비스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실록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은 아직까지 여러 기관에서 진행 중이다. 이 장에서는 지금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번역원은 현재 조선왕조실록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 이 사업은 6년을 기한으로 기존의 조선왕조실록 번역 413책을 수정,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문 입력 오류와 표점 수정 사항이 발견되고 『승정원일기』 등과의 비교를 통해 실록 원문 자체의 오류도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기간도 늘려 2026년을 사업 완료 시점으로 잡았다. 하지만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다시 사업량을 조정하여, 번역서 600책을 간행하는 것으로 최종 목표를 잡았다.

번역원의 조선왕조실록 현대화 사업의 기본 취지는 실록을 재번역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번역원에서는 몇 가지 방침을 정하였는데, 먼저 번역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록의 각 판본과 관련 자료의 교감을 통해 정확한 번역 대본을 완성하고, 번역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번역 제도, 번역 표준안, 어휘집 등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번역에 학술 주석을 확충하고 필요한 분야에는 전문가를 번역에 참여시키거나 감수와 자문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대중성을 지향하여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고 가능한 평이한 어휘를 구사하고자 하였다.

이 사업은 2010~201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실제 번역 작업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번역 대상은 조선 후기에 집중된 역사문헌 번역 경험을 활용한다는 점과,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참고할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조실록』으로 정하여 추진되고 있다.

한중연은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사업은 실록 번역본을 바탕으로 축적된 수많은 학술적 성과를 이용하여 실록을 이해하기 위한 공구서로서 전문사전을 편찬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것이다. 2007년부터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전의 항목은 실록에 등장하는 용어를 대상으로 전문용어와 고유명사로 나누어 추출된다. 전문용어는 국편의 분류색인을 참조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풍속, 교육·출판, 왕실의 7개 분야로 나누었으며 그 아래 중분류, 소분류를 두었다. 고유명사는 인물, 지명, 서명 등으로 나누었다. 전문용어와 고유명사는

항목의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로 필수 소표제를 정하고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원고를 집필하도록 하였다. 현재까지 구축된 사전은 ‘조선왕조실록사전’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세종실록 지리지』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해외 학자들이 조선을 연구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문번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영문번역 사업’은 몇 단계로 나누어 시행되는데, 우선 『세종실록 지리지』 한글 재번역 사업이 진행된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1972년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의해 번역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역주를 포함하여 새로 번역하게 된다. 재번역은 2013~2014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또한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인명, 지명, 관직명을 비롯한 곡식, 약초, 수목, 수산물 등 각 지방 토산물과 관련된 전문 용어를 영어로 옮기고 표준화하는 영어용어집(Glossary) 편찬 사업이 추진된다. 한글 재번역 사업과 영어용어집 편찬 사업이 끝나면, 영문 번역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영문 번역이 완료되면 미국의 학술전문 출판사나 대학출판사에서 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편에서는 2011년부터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표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논의하지 않겠다.

4. 조선왕조실록 웹서비스가 가져온 변화

실록의 정보화는 자료 이용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드라마 <대장금>과 <왕과 나>, 연극 <이>와 그것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 <왕의 남자>와 소설 <이>, 영화 <신기전>과 <만화 조선왕조실록> 같은 작품은 모두 실록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이 나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이 번역되고 디지털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중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조선왕조실록이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7차 교육과정 때부터인데, 그러한 변화도 조선왕조실록의 국역과 정보화 사업이 90년대에 완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외에도 여러 분과 학문이나 언론, 예술 등이 조선왕조실록의 정보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음을 증언하는 사례는 많다.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자 이에 대한 해석이 시도되었다. 그에 따르면, 그동안 실록은 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분량이 방대하다는 점 때문에 대중들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대중은 전문 연구자들이 자료를 해독하고 해석한 결과를 수용하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록은 전문 연구자와 대중의 구분이 분명한 학문 지형을 굳히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정보화를 통해 자료 이용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다음의 두 가지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먼저 자료의 해석 주체로 대중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자료의 해석이나 연구 방향을 잡아나갈 때 대중의 성향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전문 연구자와 대중 사이의 경계가 해체된다는 것이다. 곧 전문 연구자들은 대중에 대해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대중은 스스로 자료를 읽고 해석하여 연구 성과를 내게 되는 양방향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록이 정보화 되었을 때 불었던 대중화 바람은 다른 역사 자료의 경우에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부터 한국에서는 역사자료 정보화가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국편만 해도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을 비롯하여 각종 자료집과 근현대 신문, 잡지 자료 등 수많은 주요 자료를 정보화하였다. 규장각, 한중연, 번역원도 각 기관의 사정에 맞추어 수많은 자료를 정보화하였다. 현재 국편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는 30개의 연계사이트가 소개되어 있는데 모두가 중요 역사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연구자들은 자료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을 받아 연구의 양과 질을 높여 왔다. 이제는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지 않고 연구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대중적 관심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사이트들은 실록만큼 주목받지 못하였다.

실록이 대중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면 그것은 실록이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적인 성격 때문이 아닌가 한다. 실록은 날짜 단위, 기사 단위로 분절된 방대한 자료이긴 하지만 편집을 거친 역사서이다. 곧 그것은 1차 자료 그대로가 아니라 편집 과정에서 일관성을 가진 이야기로 구성된 자료라는 뜻이다. 게다가 실록 안에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기사도 포함되어 있고, 즐기와 같은 개인의 전기 자료가 있으며, 사신의 사론과 같은 해설 자료도 있다. 그것들은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 실록에 포함된 위와 같은 구성 요소들은 실록의 이야기로서의 특성을 보강해 준다. 또한 그만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도록 해 준다.

그런데 실록이 가지는 이야기로서, 담론으로서의 성격은 그동안 상당히 간과되어 왔다. 반면에 실록은 그 자체로 매우 객관적인 사료인 것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실록은 그것이 편찬될 때의 정치 상황에 따라 품고 있는 정치적 지향이 달라졌다. 정변으로 왕권이 교체된 경우나 당쟁으로 집권 세력이 달라진 경우는 더욱 심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실록은 그 자체로 왕실과 집권 양반의 관점과 이해관계에 철저히 기반을 둔 자료이다. 하지만 실록이 가지는 자료로서의 위상과 매력은 전문 연구자들조차도 그러한 점을 종종 보지 못하게 만든다.

실록의 정보화 결과 나타난 대중화 현상, 곧 실록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그것이 전문 연구자와 대중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가는 현상은 다른 역사 자료가 정보화되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만큼 실록이 가진

자료적 가치와 재미가 대단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자칫 실록이 보여주는 역사상을 조선시대 역사 그 자체인 것으로 여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위험은 실록이 대중화되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실록의 대중화 현상이 앞으로 인문학의 활성화와 같은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역사 대중화의 순기능 뿐 아니라 역기능에 대한 검토와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실록 정보화 과정이 현재 국편 실록 웹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여정에 대해 되짚어 보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웹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록 관련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아울러 실록 정보화가 가져온 대중화 현상에 대해서도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생각을 보태어 논의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실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 구상 하나를 소개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할까 한다. 실록에는 선조수정실록, 현종개수실록, 경종개수실록, 숙종실록보궐정오 등 실록 편찬 이후 부가된 실록이 있다. 현재 이것들은 실록의 원본 편제 그대로 서비스되고 있다. 만약 부가된 실록과 본 실록의 내용을 관련된 기사 단위로 나란히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면 당시의 역사 사실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비교하는 재료로서도 유용할 것이고, 실록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경향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실록을 이용해 이러한 작업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